

“우리 한양 뉴스가
달라졌어요!”

「뉴스H」 사이트 개편 안내 (V3.0)

한양대학교 대외협력처 미디어전략센터

2020.11.01 기준



뉴스H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31,547건의

국·영·중문 기사를 쌓은
한양대 전문 뉴스매체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대학 핵심 플랫폼입니다.

뉴스H가

2020년 11월,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이트 접속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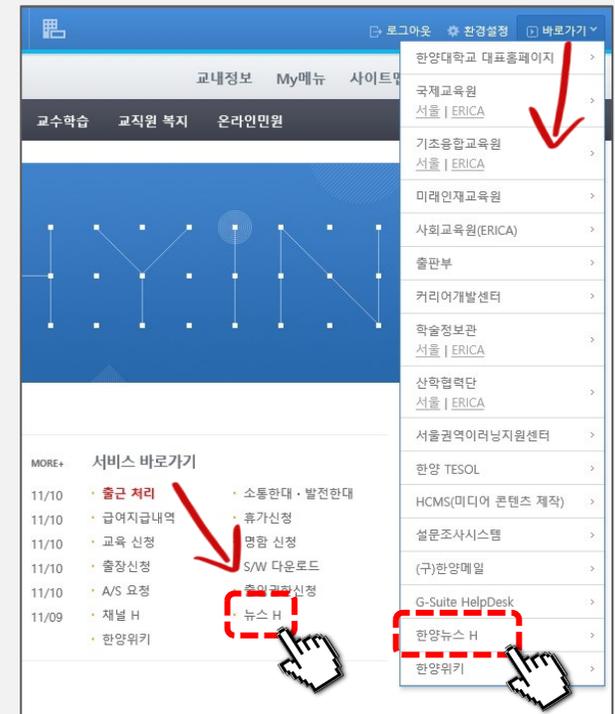
한양인은
즐거찾기
필수!!!



대표홈페이지 최상단 바로가기
www.hanyang.ac.kr



한양대 전용 앱 (한양소개)



포털 HY-in

1. 디자인이 완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아쉽고 불편했던 부분 많으셨죠? 이제 뉴스를 더 '뉴스'답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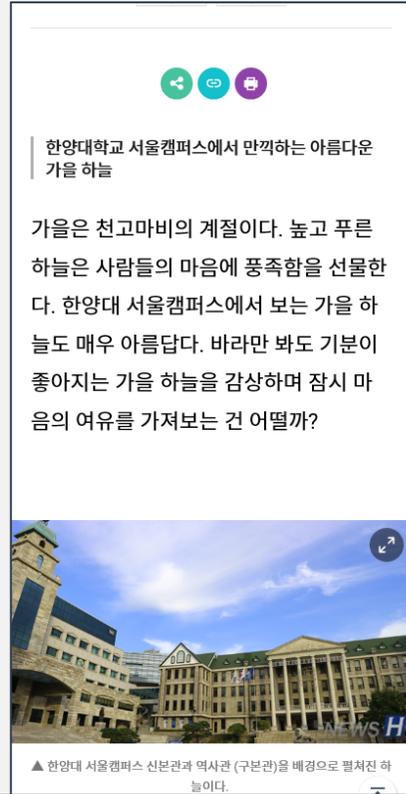


디테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다양한 기사 배치부터 여백, 썸네일, 글씨 가독성까지 ... 싹 다 바꿨습니다.

2. 모바일에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접속자의 반은 모바일! 이제 사용자의 환경을 최우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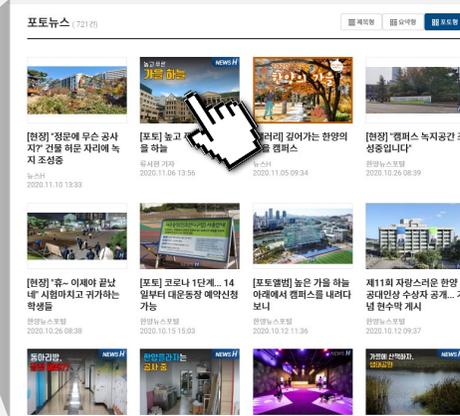


모바일 전용 화면을 통해 기능과 편리함 모두 챙겨 넣었습니다.

3.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더 잘 보여요~



뉴스+ > 포토, 영상, 카드



일반 뉴스와 섞여 있던
포토, 영상, 카드뉴스만
따로 모아 보세요.

콘텐츠에 맞게 사이즈도
시원하게~

홈 > 기획 > 기획 > 포토뉴스

[포토] 높고 푸른 한양의 가을 하늘

A 유서현 기자 | 0 입력 2020.11.06 13:56 | 0 수정 2020.11.06 15:14 | 0 댓글 0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만끽하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높고 푸른 하늘은 사람들의 마음에 풍족함을 선물한다.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보는 가을 하늘도 매우 아름답다.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가을 하늘을 감상하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 한양대 서울캠퍼스 신본관과 역사관 (구본관)을 배경으로 펼쳐진 하늘이다.

포토

홈 > 기획 > 리뷰

[영상] ERICA의 가을, 2020 Fall in ERICA

A 박수현 커뮤니케이션팀 | 0 입력 2020.11.10 14:40 | 0 댓글 0

한양대 ERICA캠퍼스의 가을 스케치 영상 ...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영상

카드뉴스
옆으로
넘겨보면
꿀잼~

홈 > 기획 > 기획 > 카드뉴스

[1956~2020] 한양플라자 변천의 역사

A 장원지 기자 | 0 입력 2020.11.06 15:01 | 0 댓글 0

제1공학관이었던 한양플라자부터 새롭게 단장 중인 2020년의 한양플라자까지

카드

4. 기사 검색, 더 넓게 더 깊게 ~

기존에 제목만 검색되던 제약은 끝! 기사 전체는 물론 상세 검색까지 가능해 졌습니다.



상단 검색창

✓ 간단 바로 검색

상세 검색 페이지

- ✓ 다양한 검색 옵션
- ✓ 날짜 기간 옵션
- ✓ 2개의 키워드까지 키워드 검색 가능!

하단 상세검색 버튼

5. 뉴스와 한양위키의 ‘끈끈’한 결합!

기사 속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 이제 클릭하면 뜨는 ‘한양위키’에서 해결하세요.

한양뉴스포털 NEWS H 한양대 축구부, 잔디구장에서 "첫 홈경기"

관련기사

- ↳ [포토] 코로나 1단계... 14일부터 대운동장 예약신청 가능
- ↳ "대학 스포츠 축구 경기" 무관중으로 열린다
- ↳ "야외체육시설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한양대 일부 야외체육시설 운영 시작
- ↳ 대박사건! 우리 대운동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키워드 보기 #축구부 #대운동장

연관링크 헤럴드경제 기사 http://news.heraldcorp.com/sports/view.php?ud=202010310927001169522_1

한지윤 커뮤니케이터 hjy0208@hanyang.ac.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양위키

https://hyu.wiki/대운동장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위치한 체육 시설(건물)이다.

2020.07.27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해 오다가, 8월 3일부터 인조잔디축구장에 한하여 (농구장, 러닝트랙 등 제한) 예약제로 사용 가능해졌다.

- 영문명: Track and Field
- 건물번호: 301

지도 위성

대운동장 소개 영상

대박사건! 한양대 잔디구장! 대운동장이 이렇게...

* 일부 기존 기사의 키워드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키워드 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키워드의 양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 정보 제공으로 더욱 '풍성'하게!

기사 하단에 '연관 링크'와 '관련 기사'를 제공해 더 많은 읽을거리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양뉴스포털 NEWS H 2021 THE세계대학순위, 한양대 351~400위권 유지

관련기사

- 2020 THE세계대학영향력 순위 발표... 한양대 세계 91위
- 2020 THE 세계대학평가, 351~400위권 유지
- 한양대, THE 세계대학순위 '세계 351~400위' '국내 8위'
- 2017 THE아시아대학평가, 한양대 38위
- THE 2015 세계대학평가, 한양대 351~400위권 랭크
- THE 2014 세계대학평가, 한양대 300위권 교수
- THE 2013 세계대학평가 발표, 한양대 300위권 대 진입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THE #THE세계대학평가 #세계대학순위

연관링크 THE세계대학평가 공식홈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

한양커뮤니케이터H hywiki@hanyang.ac.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목록

해당 기사와 관련성 높은 기사들을 하단에 나열해 과거 기록 등을 볼 수 있고 기사들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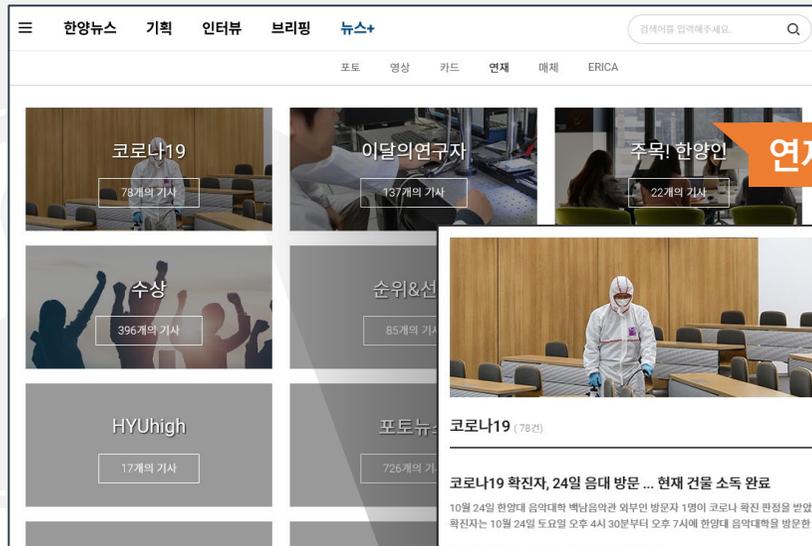
연관 링크 바로가기

출처나 참고 링크를 함께 제시하여 기사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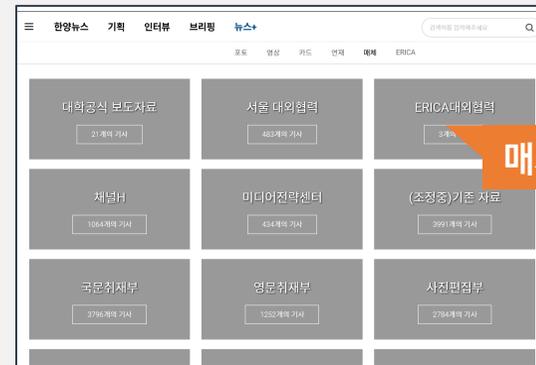
7. 따로 또 같이, 기사가 모이면 정보가 역입니다.

특정 **주제**별로 모아서 '연재보기',
 개별 **출처**별로 모아서 '매체보기',
캠퍼스 구분을 통해 'ERICA'기사만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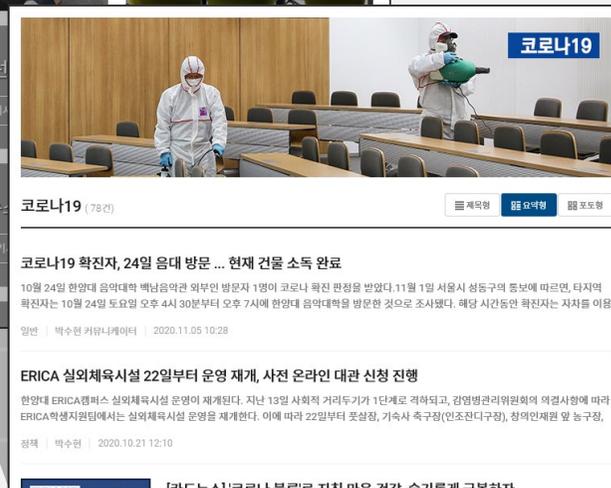
기사를 모으면 역사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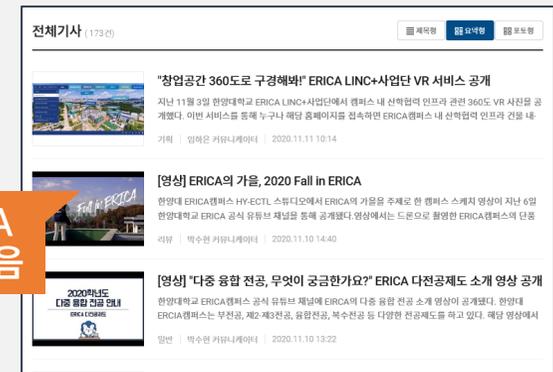
연재 목록 화면



매체 목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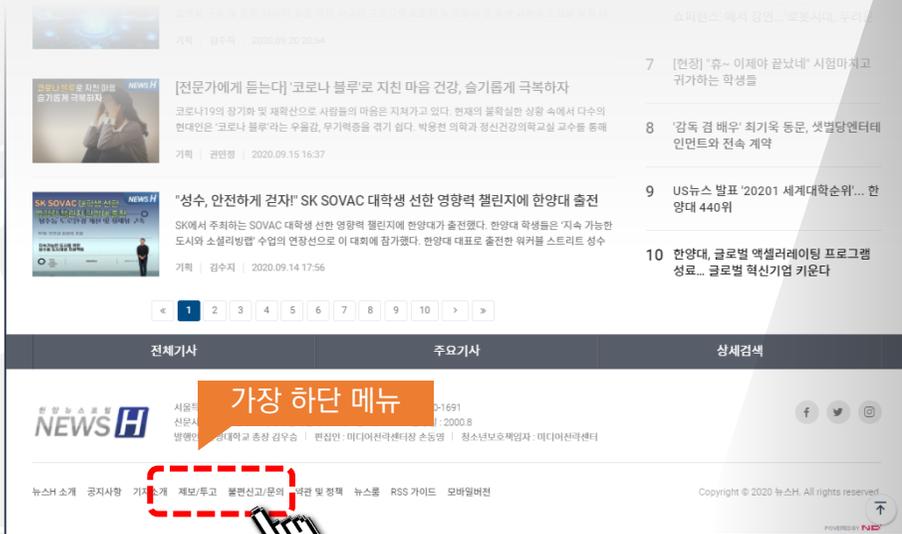
ERICA 기사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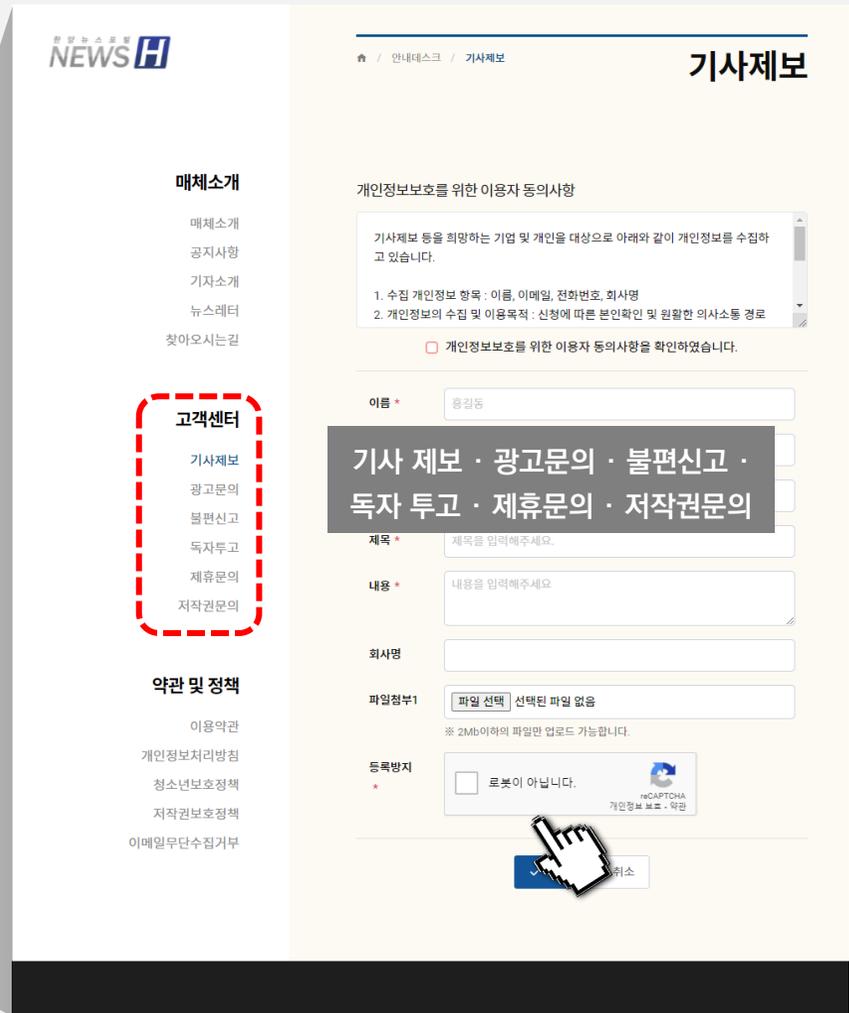
9. 이렇게 쉬운데 참여 안하세요?

온라인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양한 요청 사항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사 제보 뿐 아니라 투고, 건의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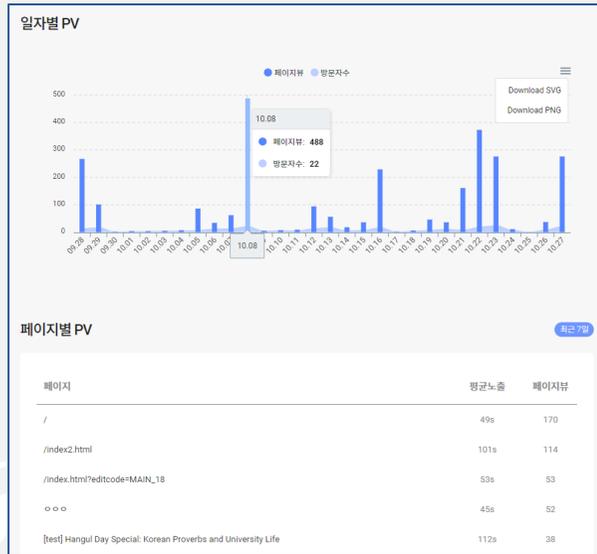
한양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보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newsh@hanyang.ac.kr



10. 통계 기반으로 내일의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관리자 화면

구글 분석 툴

기존에 알 수 없던 다양한 접속 현황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향상과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뉴스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흐뭇한 변화들

- ① 템플릿 기능으로 기사를 다양하게 꾸미고 필요에 맞게 강조하여 보여드립니다.
- ②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댓글 & 대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③ 등급별 기사, 주간 TOP10 기사, 추천 기사 등도 다양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 ④ RSS 기능을 통해 기사 받아 보기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사용해 보세요.
- ⑤ 특정 기자가 쓴 다른 기사도 읽어보세요. 기사 하단 '다른기사 보기' 클릭하면 됩니다.
- ⑥ 방문자들에게 설문조사 등 간단한 여론조사가 가능합니다.
- ⑦ 배너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홍보 안내가 가능합니다.
- ⑧ 이메일 뉴스레터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사용자 최적화를 계속하겠습니다.
- ⑨ 기존 사이트의 URL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이트로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뉴스H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대형 언론사들이 사용하는 **전문 언론플랫폼**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관리 영역**에는 더 많고 혁신적인 변화들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와 활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한양의 **브랜드와 소통**을 더욱 깊고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